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

문제민*, 정병근**

공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ism of Elementary School Sport Instructor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Je-Min Moon*, Byung-Keun J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주의를 독립변수로, 직무소진을 매개변수로 선정하고,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각각 구성 하였다. 자료수집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총 253부의 자료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자료처리는 IBM SPSS Ver. 20.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개별 가설들을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문가주의는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무소진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문가주의는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제어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전문가주의, 직무소진, 이직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ism of sport instructor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 was professionalism of sport instructors, mediating variable was job burnout. Finally, dependent variable was turnover inten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3 sport instructors of elementary school by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is study used IBM SPSS Ver. 20.0 and AMOS 18.0 for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fter confirming the test of goodness of fit of a model, individual hypotheses was verifi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rofessionalis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burnout. Second, Job burnou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Third, Professionalism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port Instructors, Professionalism, Job Burnout, Turnover Inten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the 2014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search Fund.

Received 26 March 2016, Revised 28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Byung-Kuen J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Email: yong2ya@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가사회를 발전시키는 근원에는 초등교육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체로서 초등학교사는 초등학생들을 교육 목적에 맞게 양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초등학교사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체·덕·지를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과 함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체육수업의 내실화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문화 조성 등 초등체육의 활성화라는 시대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1].

이처럼 초등체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는 국가사회의 중요한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초등체육은 복잡하고 다양한 난제와 현안을 안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여교사의 편중화 문제, 체육과 교수학습의 전문성 결여[2,3,4,5], 체육교육에 대한 교수관심사 부족 현상[6] 등으로 인하여 초등교육에서 체육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등한시되고 소홀히 지도되었다[7].

이 같은 초등체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제를 도입하였다[1]. 스포츠강사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의미한다. 즉,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 협력지도, 학생안전지도, 체육시설관리, 학생건강 체력평가제 업무지원, 체육관련 행사지원,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등 전문적인 본연의 업무를 통해 초등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제공하여, 평생체육에 대한 올바른 운동습관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강사의 근거와 근무활동에 대한 범위를 제도적인 법령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지만, 신분과 복지라는 측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특히, 불확실한 단기 계약직 신분 때문에 스포츠강사로서의 직업적인 사명감과 교과전문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초등교육은 모든 교과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체육교과 역시 스포츠강사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재정립이 대두되는 가운데 초등학교의 효율적인 체육교육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면서 특정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 기술, 기능, 지식 및 신념체계이다. 따라서 전문직은 장기간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체계의 교육과 훈련, 경험에 의하여 공공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전문직의 특성들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내재화할 때 그만큼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된다[8].

Kil[8]에 의하면 전문가주의는 개인이 전문직에 몰입되어지는 정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개인에 따라 전문직에 동일시되는 정도와 가치부여 수준은 각각 다르다고 하였다. 즉, 전문직은 전문적인 자격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지칭하는 반면, 전문가주의는 자신의 직업에 몰입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태도 지향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가주의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그나마도 산업경영 분야[8,9]와 사회체육 분야[10,11,12]에서 전문가주의에 대한 연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스트레스의 연장선에서 발전된 개념인 직무소진(job burnout)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무소진은 직업에 대한 의미와 목적으로부터 간극이 발생하며,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만성적 반응인 정서적 탈진이다[13]. 직무소진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연구한 Ku[14]는 직무소진의 행동 특징을 무단결근, 불평불만, 잦은 질병, 우울증, 술이나 약에 의존 등으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Kim과 Baek[15], Yoon과 Yoon[16]의 연구에서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성취감 저하와 감정보고같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소진이 이직의도를 가중시키는 인과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기존의 직무를 이탈하고자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17]. Barak, Nissly와 Levin[18]은 이직의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조직현신, 조직몰입, 직무소진, 직무만족을 제시하였고, Park[19]은 관련된 분장업무, 상사의 지지, 임금, 신분안정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이직의도는 직무수행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표출하는 감정적인 표현[20]

이며, 일종의 정서적인 반응[21]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주의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국내연구에서 이직 의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변수로는 젊은 나이, 짧은 경력, 낮은 학력, 낮은 급여[22], 직무소진[23]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Choi[24]는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의식이 높을수록 전체 직무만족이 높아서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직의도를 관련 변인으로 하여 중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호텔리어나 의료분야[25,26,27,28,29,30]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며, 정보산업[31]과 연구개발[9] 분야는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주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체육관련 분야도 여가스포츠지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주의와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10,12]가 진행되었지만, 초등체육 분야의 전문가주의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는 어떠한 형태이든 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되며, 초등교원으로서 스포츠강사는 초등교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초등체육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강사의 교직생활에 대한 정착 방안과 착근 방법을 모색하여, 교직생활의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면 초등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를 독립변수로 직무소진을 매개변수,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구성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1.3 이론적 관계와 연구가설

1.3.1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과의 관계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는 자신의 분야에 전문적으로 몰입되어지는 상태[32]이며, 스포츠강사에게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등체육의 근래 동향은 체육과 교수학습방법의 전문성을 역설하면서 스포츠강사에게 체육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내용

지식과 방법지식 등을 요구하고 있기에, 스포츠강사의 전문성은 과거에 비하면 그 필요성이 더욱 더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의 관계에 대하여 Lee[33]는 유아교사의 직무소진 요인을 행정적 지원 부족, 과도하고 과중한 업무, 동료교사와의 갈등,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부재에서 원인을 찾기도 했다. Jang[34]은 전문적인 역량과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자아정도, 완벽주의가 직무소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35], Han, Kim과 Yoon[36]은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전문직관을 높임으로써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스포츠강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지만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는 직무소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와 추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는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2 직무소진과 이직의도와와의 관계

직무소진(job burnout)은 개인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직무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이직의도를 높인다[37]. Baek[38]에 의하면 직무소진은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역할을 하고, 높은 수준의 직무소진을 경험한 교사는 높은 이직의도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직무소진의 하위변인인 성취감 결여, 동료관계 문제, 정서적 상실감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Koeskel[39]는 개인의 성취감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으며, 정서적으로 상실한 사람은 쉽게 비인격화되므로 정서적 상실감은 비인격화에 정적인 관계를 맺고, 정서적으로 상실한 사람은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 이직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종의 행위로 저항을 들어 내기 때문에 동료와 환경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이직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연유로 볼 때, 현재 스포츠강사는 계약직 신분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 과도한 업무, 과중한 수업 등 삼중고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교직환경의 악화와 침체로 인해 스포츠강사는 높은 수준의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스포츠강사가 많아질수록 이직의도와 이직률도 높아질 것이며, 이런 현상은 초등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직무소진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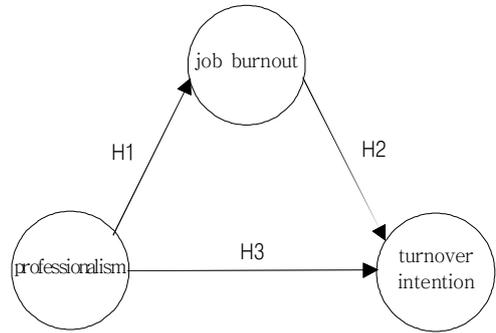
1.3.3 전문가주의와 이직의도와와의 관계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이직(turnover)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직은 직업을 바꾸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한 상태이다. 이직의도는 현재의 직장을 떠나거나 직업을 바꾸려는 생각 또는 계획을 의미한다 [40,41,42]. 이 연구는 전문가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문직관과 이직의도에 대한 선행연구[43]를 통해 전문가주의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유추하여 가설을 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주의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Zhang[44]은 호텔리어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지식의 다양성, 직무의 중요성, 직무의 자율성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Urmanov, Shin과 Kim[31]은 정보기술 전문가(IT professional)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T 전문가들은 업무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많은 에너지와 지적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이직의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45]에 의하면 전문가의 지식다양성, 업무경험성, 과업정체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부적인 피드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하면 스포츠강사의 이직의도 증가는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채용에 따른 직간접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수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초등체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전문성 있는 스포츠강사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스포츠강사를 초등교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와 유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는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변인 간의 이론적 관계를 확인하여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제시한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충남, 대전, 세종, 충북에서 재직 중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2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빈도는 남성 181명(71.5%), 여성 69명(27.3%), 결측 3명(1.2%)이고, 연령은 20대 124명(49.0%), 30대 85명(33.6%), 40대 이상 36명(14.25%), 결측 8명(3.2%)이었다. 경력별로는 1년 미만 98명(38.7%), 1년 이상 146명(57.7%), 결측 9명(3.6%)으로 나타났다.

2.2 표집방법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의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300부를 표집 하였으며, 연구에 적절하지 못한 자료 47부를 제외한 253부를 최종자료로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 3명이 2015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수교육의 장소 중 한 곳인 회암교육대학 교(가칭)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동의 후 배부하여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3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각 설문지의 구성된 요인에 관한 항목은 ‘매우 그렇다’를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Likert 5단계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변인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전문가주의

이 연구는 Hall[32]의 전문가주의를 정의로 채택하였으며, 전문가주의는 Snizek[46]의 측정척도를 기초로 하여 Kil[8]과 Shim[10]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목적에 맞게 하위요인을 스포츠강사의 사회적 의무감, 전문가 자율성, 전문성 몰입수준 등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의무감은 스포츠강사 자신의 전문분야로서 초등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학교구성원의 신뢰성 위에 존립할 수 있는 신념을 의미하며,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자율성은 스포츠강사 자신의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의 전문성은 타 전문가가 아닌 자신을 포함한 집단에서만 자신의 행동과 업무의 수행 절차 및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며,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성 몰입수준은 스포츠강사가 자신의 전문성 개발과 적용을 위해 몰입한 수준을 뜻하며 3개 문항으로,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는 총 10 문항이다.

2.3.2 직무소진

매개변수인 이 연구의 직무소진에 대한 조사도구는 Maslach, Jackson과 Leiter[47]가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Park[48]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조사도구는 인적서비스 전문직에 초점을 맞춘 MBI를 일반 전문직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그 동안의 연구[49,50]에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 받아 다양한 직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직무소진에 대한 하위요인은 정서적 상실감 4문항, 성취감 결여 4문항, 동료관계 문제 5문항으로 총 13문항이다.

2.3.3 이직의도

이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채택하고 있는 이직의도는 스포츠강사가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려는 의도인 직업 이직의도를 의미한다. 이직의도의 측정도구는 Singh, Golsby와 Rhoads[51]의 설문지를 기초로, 초등교원 대상으로 Ko[52], Baek[53]이 사용한 설문지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이직여부를 고민한 적이 있는가?’, ‘이직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 내용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초안 설문지는 두 차례의 예비검사를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예비검사의 목적은 설문내용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 세 명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다음, 본 연구자가 설문내용을 한 문항씩 그 개념을 설명한 후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단어나 문장 혹은 내용을 지적하도록 요구하였고, 특히 문항 구성이 해당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항들이 특정 내용의 독특한 의미를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두 번째 예비검사 설문지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예비검사는 희망교육대학교(가칭)에서 2015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수교육 중인 스포츠강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예비검사의 목적은 첫 번째 예비검사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지의 문항 난이도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함과 아울러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본 조사의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의 방법 및 절차

자료의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Ver. 20.0과 Amos 18.0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 간의 이론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상관관계 분석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로 구성된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 대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 TLI=.908, CFI=.919, RMSEA=.055로 나타나 Kim[54]이 제시한 적합도 기준(CFI, TLI>.90, RMSEA <.08)으로 판단할 경우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전문가주의 3가지 하위차원과 직무소진의 3가지 하위차원에 대하여 항목합산(item parceling)을 이용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LI=.945, CFI=.945, RMSEA=.072로 나타나 앞서 제시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분석한 결과, 각 변인에 대한 측정항목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5이상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1.965$),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계산한 결과, 모든 값은 일반적 기준(개념신뢰도 .70 이상, AVE .50 이상)을 충족시켜 집중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55].

판별타당성과 관련하여 Fornell과 Larcker[56]는 어느 두 변인을 대상으로 각 변인에 대한 AVE 값이 두 변인의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크면 두 변인 간에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Table 2>는 3개의 변인 간의 상관관계 값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직무소진과 이직의도인데, 이들의 상관관계 계수는 .511로 이에 대한 제곱값(.261)이 직무소진과 이직의도의 AVE 값에 미치지 못하므로 앞서 제시한 판별타당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1~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각 개념별 측정변수에 대해서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주의의 신뢰도 계수 .830, 직무소진의 신뢰도 계수 .851, 이직의도의 신뢰도 계수 .909로 나타나 Nunnally와 Bernstein[57]이 제시한 일반적인 기준인 .7을 상회하고 있어 측정변수들이 내적 일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3.2 연구가설의 검증

이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 TLI는 .945($\geq .90$), CFI는 .956($\geq .90$), RMSEA는 .072(.08이하)로 나타나,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용한 Kim[54]의 제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Fig. 2]는 경로 분석의 결과이다.

4. 논의

4.1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의 관계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는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11,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Han, Kim과 Yun[36]에 의하면 직무소진은 전문직관과 역상관관계로 전문가주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An[58]은 전문가주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경험정도는 감소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중요도와 함께 이에 따른 직무소진의 예방 대책과 감소 방안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분야에 전문직관으로 강하게 몰입된 스포츠강사일수록 전문가주의인 사회적 의무감, 전문가 자율성, 전문성 몰입수준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교직생활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인해 초등교육에로의 공헌과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의무와 책임, 그리고 봉사과 헌신이 발휘되어 양질의 체육교육으로 보답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스포츠강사의 초등체육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의 전문성은 해당 업무와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신감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스포츠강사가 초등교사보다 외현적으로 초등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수준은 높을 수는 있으나, 초등교육을 이해하여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는 내현적인 것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59]. 그러므로 스포츠강사는 초등체육의 발현적인 전문가주의와 더불어 초등교육의 본질적인 것에 보다 많은 연구와 연찬이

<Tabl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The firs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seco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n. St. estimat	St. estimat	measure error	t-value	C.R.	AVE	Cronbach's alpha	Un. St. estimat	St. estimat	measure error	t-value	C.R.	AVE	Cronbach's alpha
의무감	나는 초등체육의 발전에 공헌함	.600	.350	-										
	나는 스포츠강사의 책무를 다함	1.109	.577	.484	7.941									
	나의 개념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971	.661	.239	8.812	.759	.513	.646	1	.894	.066	-		
전문가성	초등체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													
	학회의 활성 필요함	1	.671	.352	-									
	나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함	.869	.604	.379	8.270									
주요성	나는 관리자의 감독 없어도 충분히	.836	.694	.217	9.297	.844	.575	.759	.833	.746	.146	12.439	.939	.839
	자유롭게 수업결정이 중요	.982	.670	.341	9.033									
	학회는 체육수업의 주체임*													
입문	나는 학회활동에 대하여 관심과	1	.638	.411	-									
	다툼 없는 적극적인 역할임	1.192	.779	.259	9.174									
	수모범적 동료들은 고무할 만한	.774	.530	.432	6.986	.775	.540	.678	.987	.780	.166	12.958		
정신적	운동수준 낮은 학생에게 스트레	1	.389	.038	-									
	손발을 학생과의 생활이 피곤함	1.367	.446	.047	8.873	.937	.789	.790	1	.809	.164	-		
	교직생활이 정서를 메마르게 함	1.305	.366	.040	9.031									
적극성	체육수업 중 학생의 일에 관심	1.374	.367	.041	9.177									
	교육생활에 대한 허탈감	1	.659	.485	-									
	취업으로 심신이 지침	.966	.611	.570	8.414									
적극성	수업과 업무로 기진맥진 함	1.022	.639	.564	8.737	.799	.501	.774	1.003	.792	.186	12.798	.923	.801
	담당업무로 인한 좌절감을 느낌	1.046	.801	.228	10.436									
	스포츠강사라는 직업에 회의감													
문제	동료들이 나를 탐탁지 않게 생	1	.672	.477	-									
	동료교사가 나의 업무능력 없다	1.052	.812	.225	11.243									
	과외로 동료교사와 의견	.977	.732	.325	10.303	.898	.641	.855	.990	.828	.140	13.246		
문제	동료들에게 지지 거의 받지	1.077	.852	.172	11.673									
	동료교사와 갈등 수준이 높은	.864	.663	.374	9.448									
	권한이 있다면 다른 일 하고	1	.710	.464	-				1	.708	.467	-		
이직	혁을 생각하나 실행치 못하고	1.238	.778	.471	11.873				1.242	.779	.470	11.840		
	체운을 직장 취업정보 획득에	.986	.614	.760	9.379				.990	.614	.759	9.366		
	취업정보를 그만둘까라는 고민	1.243	.812	.378	12.378	.902	.571	.909	1.243	.809	.383	12.292	.902	.570
도	스포츠강사라는 직업을 재 선택	1.177	.802	.363	12.231				1.178	.800	.366	12.164		
	완전히 그만 둘 생각을 함	1.394	.907	.198	13.747				1.402	.909	.193	13.714		
	주위사람에게 이직을 물어봄	1.162	.747	.505	11.404				1.167	.748	.503	11.383		

The first CFA: $\chi^2=675.830$, $df=384$, $p=.000$, TLI=.908, CFI=.919, RMSEA=.055
 The second CFA: $\chi^2=143.488$, $df=62$, $p=.000$, TLI=.945, CFI=.956, RMSEA=.072

*The removed question by hindering convergent validity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professionalism	job burnout	turnover intention
professionalism	1		
job burnout	-.426***	1	
turnover intention	-.208***	.511***	1

*** $p<.001$

<Table 3>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Hypot hesis	path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	t-value	results
H1	professionalism→job burnout	-.462	.079	-5.840***	supported
H2	job burnout→turnover intention	.634	.102	6.221***	supported
H3	professionalism→turnover intention	.016	.095	.168	not supported

*** $p<.001$

요구된다. 예를 들면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구비가 필요하다. 스포츠강사는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교육자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사고력과 판단력에서 미성숙한 부분이 많으므로 세심한 지도와 섬세한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스포츠강사는 항시 모범적이고 올바른 언행을 보임으로써 어린학생들에게 건강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성품과 온화한 태도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정서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초등 교육을 한층 더 견고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직무소진과 이직의도와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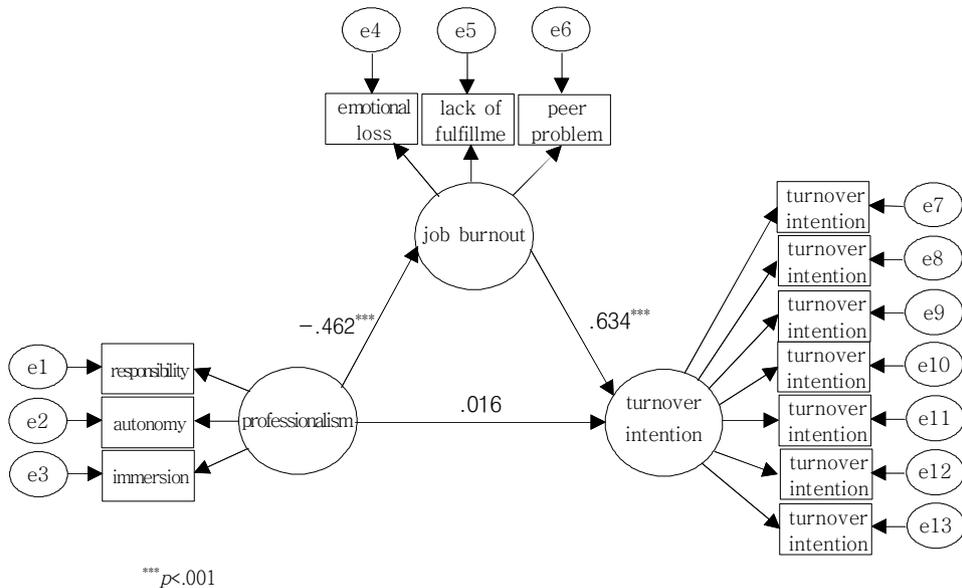
스포츠강사의 직무소진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는 스포츠강사의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정서적 상실감, 성취감 결여, 동료관계 문제 등의 하위요인은 의욕상실을 일으켜 동료 교사나 초등학생들에게 불친절 및 무관심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려는 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Oh[60]는 체육교과의 전문성이 뛰어난 스포츠강사가

체육수업의 보조임무를 수행하고, 명확하지 않은 직업적 위치 때문에 직무소진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Gang, Lee와 Yoo[61]의 연구에서 스포츠강사제도 실시에 따른 개선점으로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스포츠강사는 초등교육에서 자신의 전문성 발휘를 통해 직업적인 성취와 교육적인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임금 및 복지에 있어서 부당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62].

특히, 초등체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스포츠강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임금동결의 현실과 물리적인 인원 감축으로 인한 회의감 때문에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스포츠강사제도의 보다 명확한 복무규정을 학교현장에 맞게 제정하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대립과 논쟁의 뻘썩으로 인한 희망고문이란 아닌, 소통과 공감을 통한 덧셈의 스포츠강사제도를 연착륙시켜 그들 스스로 초등교육에 적합한 존재임을 지각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을 펼쳐야만 국가사회가 염원하는 초등체육의 정상화와 내실화,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스포츠강사 또한 초등교원으로서 친화



[Fig. 2] Result of Structural Model Analysis

적이고 융화적인 교직생활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일종의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스포츠강사 역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순간부터 교원(faculty)의 신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다양한 구성원과 끊임없는 상호관계를 긍정적이고 호혜적으로 유지해 나아가갈 준비와 노력도 필요하다.

4.3 전문가주의와 이직의도와와의 관계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전문가주의와 이직의도에 인과관계를 주장한 연구[11,12]와 상반된 결과이다. 특히 Kim[63]은 전문직관과 재직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직관의 하위요인인 신념과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주장을 통해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Kim[62]의 연구에서 스포츠강사는 동료인 다른 스포츠강사가 이직하는 것을 보면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초등학생들이나 동료교사 또는 관리자에게 듣는 따뜻한 말 한 마디로 인하여 교육적인 보람을 느껴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근무환경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고 보고하였다. 이 같은 까닭은 스포츠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교육적 풍토로 인해 아직까지는 전문가주의가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후속연구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는 '전문가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전문가주의와 이직의도와와의 관계를 유추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 하였으나 연구자의 예상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특수 직종인 임상간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연구된 전문직관과 이직의도의 관계[8,63]와는 다른 시선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이직의도는 새로운 관점과 가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의 비정규직인 스포츠강사가 지각하는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스포츠강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시사점과 동시에, 초등교육에 현장 친화적이고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주의를 독립변수로, 직무소진을 매개변수로 선정하고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각각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통해서 얻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주의는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소진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주의는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스포츠강사제도의 전폭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통하여 초등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초등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을 통하여 초등체육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학교체육활성화 정책'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계약직 중 대표적인 사례로 스포츠강사를 들 수 있다. 스포츠강사의 단기 계약 이후 재임용 여부에 대한 불안과 평가 때문에 그들은 초등학교가 요구하는 불합리한 부분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암묵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안팎의 각종 체육행사와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까지도 주도적으로 지도하고 참가한다. 하지만 지도자는 항상 초등교사로 되어있어, 그와 관련된 성과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전문성 있는 스포츠강사는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게 되고, 이는 직무소진과 이직의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스포츠강사의 재직의도(intention of retention)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스포츠강사의 행정적인 신분안정 및 재정적인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을 통하여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에 대하여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항목합산(item parceling)을 실시하고, 2차 확인적 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후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전문가주의와 직무소진을 다차원화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세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연구하면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이직의도는 스포츠강사가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직할 의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형태인 스포츠강사에게 ‘다음 학년도 다시 근무할 의도’, 혹은 ‘다음 기회에 다시 근무할 의도’의 근무에 대한 지속 여부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유추하여 스포츠강사의 전문가주의와 근무의도와와의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포츠강사의 개인별 전문가주의에 대한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와 같이 정량적 접근뿐만 아니라, 실제 스포츠강사의 일상적인 교직생활을 관찰하는 정성적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스포츠강사의 심층적인 교직생활에 대한 회노애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the 2014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search Fund.

REFERENCES

- [1]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6 Required Guidance for New Sport Instructors of Elementary school. Daejeon: Boseong”, 2016.
- [2] Jong-Hwa Kim, “A Case Study on the Outlook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Physical Education Instru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6.
- [3] Hye-Sook Kim, “An Analysis of Barriers to Physical Education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8.
- [4] J. J. Park, “The factors of elementary classroom teachers’ deficit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6, No. 1, pp. 391-408, 2007.
- [5] J. H. Le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ports Instructor Management System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Vol. 10, No. 4, pp. 117-129, 2012.
- [6] J. M. Moon, “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eaching Concerns about Physical Education Lesson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5, No. 4, pp. 317-328, 2006.
- [7] Gab-Ryoul Yang, “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of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 2000.
- [8] Woog Kil, “A Study on the Cognition of Professionalism and Procedural Justice Affecting Intent to Leave by the Professiona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Kore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hee University, 2006.
- [9] Ji-Yun Choi, “The effects of job embeddedness, professionalism, and recruiters at entry on turnover of R&D Profession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2014.
- [10] Sang-Sin Shim, “Analysis of Causal Model on Professionalism, Job Embeddedness, Job Burnout

- and Turnover Intention of Leisure Sports Instru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2011.
- [11] S. S. Shim, "Influence of Professionalism on Job Embeddedness and Job Burnout of Life Time Sports Instructo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1, No. 1, pp. 323-332, 2012.
- [12] S. S. Shim, & S. K. Kim, "Analysis of Causal Model for Professionalism, Job Embeddednes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Leisure Sports Instructors.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Curriculum Instruction". Vol. 16, No. 4, pp. 1101-1121, 2012.
- [13] C. Maslach, W. B. Schaufeli, & C. P. Leiter,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2, No. 1, pp. 397-422, 2001.
- [14] Ja-Kwan Ku, "The effect of verbal abuses on casino dealers'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employee turnov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07.
- [15] H. C. Kim, & S. H. Baek,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Job Stres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School Dietitians, School Nutrition Teachers and School Food service Employees.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17, No. 2, pp. 31-47, 2011.
- [16] S. M. Yoon, & S. J. Yoo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an Aerial Navigator Member. Tourism & Leisure Research", Vol. 23, No. 6, pp. 59-77, 2011.
- [17] Yeo-Joo Suh, "The Effects of Job Insecurity of Turnover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2004.
- [18] M. M. Barak, J. A. Nissly, & Levin, "Antecedents to Retention and Turnover among Child Welfare, Social Work and Other Human Service Employees. Social Service Review", Vol. 75, No. 4, pp. 625-661, 2001.
- [19] Moon-Su Park,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Members' Job Burnou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2005.
- [20] S. W.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Casino Corporate Culture on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urism & Leisure Research", Vol. 18, No. 4, pp. 115-134, 2006.
- [21] J. S. Lee, "The Relationships among Organization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the Hotel F&B Employee. Tourism Research", Vol. 19, No. 1, pp. 35-53, 2004.
- [22] Hye-Kyung Cho, "Hospital Nurses' Intention to Leave and Turnover Rate Related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2.
- [23] Kyung-Jin Choi, "The Factors that Affect Burnou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7.
- [24] Yeon-Suk Choi, "A Study on Occupational Consciousness and Satisfaction of the Care Giv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04.
- [25] K. K. Park, & K. E.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mbeddedness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 Korean Management Review", Vol. 33, No. 5, pp. 1423-1440, 2004.
- [26] Kyung-Ah Lee, "The Effects of Employees' Job Embeddedness on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Hotel Industr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Commi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2012.
- [27] W. B. Chun, & I. K. Park, "Effects of Job Embeddedness on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Hotel Employees. Tourism Research", Vol. 21, pp. 291-308, 2005.
- [28] Byoung-Jo Min, "Influence of Job Embeddedness and Job Stress o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Burnout Mediated by Job Attitu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2014.
- [29] B. J. Min, & B. J. Kim, "Influence of Job

- Embeddedness and Job Stress o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Burnout Mediated by Job Attitud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Vol. 31, No. 4, pp. 25-48, 2013.
- [30] Y. M. Kim, K. W. Byeon, & J. W. Le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ki School Lecturer' Job Embeddedness and Work Intention.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Vol. 17, No. 5, pp. 31-47, 2012.
- [31] B. Urmanov, H. Y. Shin, & K. S. Kim, "A Study on Factors Affeting Turnover Intention of IT Professionals. *Review of Eurasian Studies*", Vol. 10, No. 1, pp. 147-174, 2013.
- [32] R. H. Hall,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3, pp. 92-104, 1968.
- [33] B. L. Lee, "The Effect of Teacher Efficacy and Emotional Labor on Burnout for Kindergarten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4, No. 3, pp. 129-152, 2014.
- [34] Ji-Hyun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Teachers' Stressors and Psychological Burnout: The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15.
- [35] So-Young Kim, "Comparison of job as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conflicts involving performance of duty, job stress and burn-ou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9.
- [36] S. S. Han, M. H. Kim, &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73-79, 2008.
- [37] Seong-Kil Oh, "A Study on Effect of Job Burnout Suppor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2012.
- [38] Su-hyun Baek, "The causal model of job stress,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0.
- [39] K. Koeske, "A preliminary test of stress strain outcome model for re-conceptualizing the burnout phenomenon. *Journal Service Research*", Vol. 17, pp. 107-135, 1993.
- [40] Hwan-Jung Lee,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on Turnover Intention of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2014.
- [41] Jung-Im Kim, Bo-Ram Choi, "Convergence Study on Emotional Labor, Stress Response and Turnover Intention of Call-center Work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39-146, 2015.
- [42] Mi-sook Choi, Dong-ha Ji, "The comparative study on changes i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convergence mediating factors and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7-34, 2015.
- [43] M. H. Nam, & Y. C.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tter Life Index, Nursing Performance and Intents to Leave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9, pp. 417-427, 2012.
- [44] Hong Zhang,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 on the Hotel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ju University, 2012.
- [45] Jin-Hyung Kim,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 on the Baristar'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3.
- [46] W. Snizek, "Hall's professionalism scale: An empirical re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7, pp. 109-114, 1972.
- [47] C. Maslach, S. Jackson, & M. P. Leiter,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3rd.(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7.
- [48] Keun-Do Park, "The Relationship among Job Embeddedness, Job Burnout and Customer Orien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2011.

[49] K. H. Shin,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General Survey(MBI-G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5, No. 3, pp. 1-17, 2003.

[50] Hyoung-Min Choi, "Research on Job Burnout, Turnover Intention, and Job Embedded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2008.

[51] J. Singh, J. R. Goolsby, & G. K. Rhoads,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oundary spanning burnout fo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31, pp. 558-569, 1994.

[52] Eun-Ah K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ew on Teaching Profession of the Teachers in Charge of Special Education with Emotional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2010.

[53] Hyun-Soon Bae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Job Stres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Elementary School Care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5.

[54] K. S. Kim, "New Amos 7.0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2007.

[55] J. F. Jr. Hair, R. E. Anderson, R. L. Tatham, & W. B.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6th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2006.

[56] C. Fornell, &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1981.

[57] J. C. Nunnally, &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NY: McGraw-Hill", 1994.

[58] Su-Kyoung A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Identity and In-Service Training and Burn-ou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00.

[59] C. M. Chae, T. H. Kim, M. H. Park, & Y. S. Kim, "Study on the Analysis of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Sport Instructor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1, No. 1, pp. 335-366, 2011.

[60] Won-Seon Oh, "Analysis on Conflict Factor and Desirable Role of Elementary School Sports Instru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12.

[61] M. Gang, J. E. Lee, & Y. S. Yoo, "The Effects of Employment Instability and Task Exhaust of Sports Instructor on Turnover Intention: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Korea Society Wellness", Vol. 11, No. 1, pp. 83-96, 2016.

[62] Seong-Bae Kim, "The Attitude Typology of Sports Instructors to Turnover: Q Methodological Approa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2014.

[63] Mi-Ran Kim, "Clinical Nurses' Professionalism, Nursing Performance and Intention of Re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8.

문 제 민(Moon, Je Min)



- 1994년 2월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체육학사)
- 1997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체육학 석사)
- 2000년 8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이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공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
- E-Mail : munjm@gjue.ac.kr

정 병 근(Jung Byung Keun)



- 2000년 2월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체육학사)
- 2006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체육학 석사)
- 2009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이학박사)
- 2011년 4월 ~ 2013년 3월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2013년 7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초빙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
- E-Mail : yong2ya@hanmail.net